



덕숭산 수덕사를 찾은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폭염 특보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기도에 동참했다.

## 덕숭산 곳곳에 가득한 선사들의 ‘법향’ 만끽

예산 수덕사로 떠난  
열두 번째 기도회



전국적으로 폭염(暴炎) 특보가 내려진 8월 16일, 30도가 웃도는 기온 속에서도 선목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의 대장정은 계속됐다. 이번 순례지는 근대 한국불교의 선풍의 종중지 예산 덕숭산 수덕사. 경허선사와 만공선사 그리고 해암·벽초스님 등 선사들의 법향이 오롯이 스며있는 수덕사를 찾은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은 경내에 들어서서 순간 마치 수행자가 된 듯 숙연해진다. 대웅전을 참배하고 나온 한 회원은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닦으며 “대선사들께서 정진했던 덕숭산 품에 와 있다는 자제만으로도 모든 업장이 땀으로 소멸되는 것 같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이렇게 덕숭산 수덕사를 찾은 회원들은 마치 수행자가 된 듯 각자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폭염 속에서 <천수경> 독송에 이어 진행된 108참회는 말 그대로 ‘고행(?)’이었다. 불과 10회도 안 돼 대다수 회원들은 소나비를 맞은 듯 땀에 옷이 흥건해 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참회문을 외며 절수행을 했다.

회원들의 발원은 저마다 다르지 몰라도 덕숭산 지각 수덕사에 모여 불교를 믿고 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아 보였다. 또한 선목 혜자 스님과 함께 수덕사 관련 시(詩)를 또박또박 읽어 나갈때는 모두가 시인이 된 듯 진지했다.

“배움과 덕성을 주는 도량 경허선사의 할, 만공선사의 방, 법장스님의 사자후, 활달하고 걸림 없는 가풍 근대 선풍 다시 세운 곳...”

‘수덕사’ 시를 읽어 내려가며 수덕사의 역사와 선지종찰의 면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불자로서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가득차 보였다.

기도에 이어 수덕사 법회가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혜자 스님의 원력과 법력을 보여주는 그 자체이다”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성도 밝히고 포교에도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최승우 예산 군수도 인사말을 통해 “세계일화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모인 여러분이 일화처럼 느껴져 반갑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선목 혜자 스님은 최승우 예산 군수에게 108만원의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어서 가수 송춘희 씨가 부른 ‘수덕사의 여승’으로 잘 알려진 수덕사내 견성암 선방 스님들을 위해 대중공양비를 견성암 선원장 스님에게 전달했다.

또한 17일에는 조계종 균종교구장인 일련 스님으로부터 균불교 발전을 위한 무량한 관심과 108산사기도봉행을 하며 초코파이 대중공양을 통해 불자 장병의 신심증장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법회가 끝난 뒤 선

목 혜자 스님과 응산 스님은 염주알이 든 용봉향로를 들고 경내와 탑을 돌고 수덕사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을 선목 혜자 스님이 회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염주알을 받아든 회원들은 마치 수행의 값진 결과물을 받은 듯 기뻐하며 농촌사랑 직거래 장터에 들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날 장터에는 사과, 상항버섯, 고추, 느타리 등 예산 특산물들이 펼쳐졌다. 특히 16·17·18일 3일 간에 걸쳐 회원들이 보시한 4만 여 개의 초코파이는 처음으로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 장병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덕숭산 수덕사에서 12번째 순례법회를 마친 108산사순례

### 성금 108만원·초코파이 4만개 보시

### 당진서 열린 연꽃축제 개막식 참석도

기도 회원들은 돌아오는 길에 연꽃축제의 현장도 방문했다. 그곳은 다름아닌 당진 아미산 정토사가 마련한 제2회 백련사랑연꽃축제 개막식.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은 농촌살리기 운동, 친환경 빈 그릇 운동 선포식을 갖고 밸리댄스와 뜬쇄 공연 등을 보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백련축제에 참석한 기도회 회원들은 정토사 주지스님으로부터 가정에서 손쉽게 백련을 키울 수 있는 발아 종묘를 선물 받았다.

한편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오는 9월 15일 충북 충주 중앙탑에서 창립 1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농촌사랑’이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영산재 및 방생법회, 기념대법회, 유등제 및 축하공연 등 3부로 나눠 진행된다.

선목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오는 9월 말 조계종특별총회도량 문경 봉암사에서 13차 순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예산수덕사=고영배 기자



기도회 회원들의 초코파이 보시를 받는 혜자 스님(사진 맨위). 농촌사랑 직거래 장터가 펼쳐진 수덕사 경내(사진 가운데). 당진 정토사 연꽃축제에서 빈그릇운동 발대식을 기쁘다(사진 아래).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